

제 301호 · 2015년 4월 8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DPW, 캐나다 프린스 루퍼트항 컨테이너 터미널 인수 예정
2. CAI NIAO, 올해 중국 50개 도시에 익일배송 실현 계획
3. Redwood Group, 오사카 신규 물류센터 건립
4. 인도 전자상거래시장 전망 - 과장인가 진실인가

물류시장동향

1. 아시아 기업들, 미얀마 시장 진출 확대
2. 2015년 1분기 러시아 전체 철도 처리물동량 감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 DPW, 캐나다 프린스 루퍼트항 컨테이너 터미널 인수 예정

- 세계 3위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인 DPW가 도이치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캐나다 프린스 루퍼트항의 페어뷰(Fairview) 컨테이너 터미널을 인수할 예정임
 - 실질적인 인수가격 (cash-free, debt-free basis)은 약 4억 5,700만 달러로 예상됨
 - 2007년에 개장한 페어뷰 컨테이너 터미널은 철도노선이 인입되어 있으며 현재 연간 처리능력은 85만 TEU 정도이나, 2단계 확장이 이루어지면 135만 TEU로 증가하게 됨
 - 운영기간은 2034년까지이며, 2단계 확장 이후 2056년까지 연장이 가능함
 - DPW는 캐나다 정부의 승인 등을 거쳐 2015년 상반기 중에 거래를 완료할 계획임
- 도이치 은행은 2008~2009년 세계금융위기 발생 이후 적자가 지속되자, 부채조정 등을 실시하고 2014년 이후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사업 매각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짐
 - 도이치 은행은 2007년에 미국 뉴욕과 뉴저지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Maher Terminal의 지분 100%를 인수했으며, Maher Terminal은 같은 해 프린스 루퍼트항의 페어뷰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권을 획득하여, 3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해왔음
 - 당시 인수금액은 부채를 포함하여 총 23억 달러에 달했음
 - 금융위기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도이치 은행은 Maher Terminal의 일괄 또는 부분 매각을 추진했으며, 뉴욕 및 뉴저지항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프린스 루퍼트항이 이번에 DPW에 매각된 것임
- ※ 도이치 은행의 2007년 Maher Terminal 인수는, 2006년 DPW가 영국의 P&O 인수 시, 보안 이슈로 인해 P&O가 보유한 미국 항만의 터미널 운영권을 반납해야 했던 사례와 비교됨
- 이로써 DPW는 밴쿠버항의 CENTERM 터미널에 이어 캐나다에서 두 번째 컨테이너 터미널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페어뷰 컨테이너 터미널 2단계 확장에 착수할 예정임
 - 페어뷰 컨테이너 터미널 2단계 확장은 2017년 1사분기에 완료될 예정이며, 500개 이상의 직접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DPW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 페어뷰 컨테이너 터미널의 처리능력을 최대 245만 TEU로 확대하는 방안 또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짐

자료 : dpworld.com 보도자료, 2015.4.2. / www.wsj.com, 2014.6.26.

송주미 전문연구원 (☎ 051-797-4773, jmsong@kmi.re.kr)

□ CAI NIAO, 올해 중국 50개 도시에 익일배송 실현 계획

-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의 물류기업 CAI NIAO가 올해 알리바바의 B2C 쇼핑몰인 Tmall 물류배송 센터 3개를 증설할 계획임
 - CAI NIAO는 현재 운영 중인 텐진, 상하이, 쑤저우, 광저우 Tmall 물류배송센터에 이어 올해 청두(成都), 우한(武汉), 찐이(金义) 3개 지역에 물류센터를 추가 설립하여 중국내에 총 7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게 됨
 - 계획 중인 물류센터가 운영되면, CAI NIAO는 중국 25개 성급 행정구, 약 250여 개 도시를 아우르는 배송 네트워크가 구축되며, 그 중 50개 도시에는 온라인 쇼핑 구매자가 당일 주문하면 익일배송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 CAI NIAO는 현재 배송 서비스 다양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28개 도시에서는 소비자가 선택한 시간에 상품을 배송하는 '맞춤 배송' 서비스 출시 및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항저우 등 5개 대도시에서는 야간 배송 서비스도 시작할 계획임
- 또한 CAI NIAO는 중국 우정그룹(CHINA POST)과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쇼핑 구매자가 우정그룹의 5,000개 우체국 및 기타 대리점 등을 방문해 주문한 상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함
 - 동 서비스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항저우 등에서 먼저 실시하고, 4월 말 경 다른 도시들로 확대될 계획임
 - 2014년 6월 우정그룹은 알리바바와 MOU 체결을 통해, 향후 물류, 전자상거래, 금융 등의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이번 조치는 당시 논의되었던 'China Smart Logistic Network'¹⁾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우정그룹 네트워크를 최초로 민간 물류회사에 개방한 것임
- 한편 CAI NIAO의 한국 에이전트인 ICB는 최근 현대로지스틱스와 물류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상품 물류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도 확대하고 있음
 - ICB는 중국향 역직구 물류 서비스를 위해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인 Alipay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해외직구 사이트 Tmall Global에 입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자료 : www.chinadaily.com.cn, 2015.4.2. / tech.sina.com.cn, 2015.4.2.

김세원 연구원 (☎ 051-797-4759, ksw@kmi.re.kr)

1) 2013년 5월 알리바바그룹을 주축으로 하여 탄생된 CAI NIAO는 장기적으로 3,000억 위안의 투자를 통해 '중국 전역에 24시간 배송망'을 구축한다는 'China Smart Logistic Network'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함

□ Redwood Group, 오사카 신규 물류센터 건립

-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물류부동산 개발업체 Redwood Group은 약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일본 오사카 지역에 2개의 신규 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함
- 두 개의 신규 물류센터는 Redwood의 일본 물류시장 확장 정책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며, 난코나카 (Nanko Naka) 만안(灣岸) 지역, 후지이데라 시(藤井寺市, 오사카 부)에 각각 위치할 예정임
- 오사카 항만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두 개의 신규 물류센터를 통해 일본내 주요 도시들과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 난코나카 만안 지역의 물류센터는 일본에서 가장 큰 25만m²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16년에 착공, 2018년까지 완공될 예정임
 - 오사카 북쪽 후지이데라 시의 물류센터는 15만m²의 면적에 5층 구조의 창고이며, 올해 10월에 착공, 내년 말 완공됨
- Redwood의 Charles de Portes 사장과 Stuart Gibson 최고 경영자는 “일본 관서지역에 대규모 물류 센터 건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효율성, 안정성,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국내외 고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언급함
- Redwood Japan의 Hideaki Matsunami 전무이사는 “오사카를 비롯한 관서 지역은 높은 수요에 비해 기존의 물류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추후 첨단화된 2개의 신규 물류 시설이 완공되면 이러한 물류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임
- Redwood는 신규 시설 건립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자재, 수도 시설, 에너지 절감형 조명 설치 등에 국제 기준을 적용할 것이며, 각 층별 차량 접근성 등 작업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있음
 - 이 외에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고객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백업 발전기 또한 설치할 예정임

자료 : www.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5.3.30.

손보라 연구원 (☎ 051-797-4781, bora62@kmi.re.kr)

□ 인도 전자상거래시장 전망 – 과장인가 진실인가

- 다수의 시장조사기관들이 인도 전자상거래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가트너(Gartner)사는 '15년 인도의 전자상거래시장이 '14년 대비 70% 성장한 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포레스터 리서치(Forrester Research)사는 '14년 인도의 전자상거래시장 규모가 39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힘
 - 이마케터(e-Marketer)는 '14년 인도의 소매전자상거래 매출 규모가 53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여행 분야를 제외한 '15년 인도 소매 전자상거래시장은 전년 대비 45.2% 증가한 76.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트랜스포트인텔리전스(Ti)사는 인도의 전자상거래 물류시장 규모는 '14년 26.7억 달러에서 '18년 50.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최근 아마존은 급성장하는 인도 전자상거래 물류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에 물류 자회사를 설립함
 -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주문된 물품에 대해 아마존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Amazon Transportation Service Private Limited)사가 직접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인디아 포스트(India Post), 가티(Gati), 블루 다트(Blue Dart) 및 DHL과도 협업하고 있음
 - 아마존은 이미 인도 8개 주에 9개의 주문이행센터(Fulfilment center)를 설립함
- 쿼츠 온라인(Quartz Online)은 인도의 전자상거래시장에 대한 평가가 인도 전자상거래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과대평가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일례로 알리바바 그룹은 인도 온라인 소매기업인 스냅딜사의 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판단하여 투자를 취소했음
-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가 인도 전자상거래시장 및 관련 물류시장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인도의 온라인 소매기업인 플립카트(Flipkart)사와 스냅딜(Sanpdeal)사는 전자상거래 물류에 관한 각사의 계획을 발표함
 - 스냅딜사는 온라인 소매업체인 자봉(Jabong)사의 물류기업 고자바스(Gojavas)를 인수했으며 향후 2~3년 내에 매달 배송건수가 80만~100만 개로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약 200만 달러를 배송능력 제고를 위해 투자할 계획임
 - 플립카트(Flipkart)사는 자사의 물류그룹 이카트(eKart)사²⁾를 내년 또는 그 이후에 독립시키고 미국 증시에 신규 상장(IPO)할 계획임

2)이카트는 플립카트(Flipkart)사 전체 주문물품의 85%를 배송하고 있음

- 인도의 전자상거래시장은 취약한 인프라 및 정부 규제로 제약을 받는 시장으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면 전자상거래시장 및 관련 물류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 현재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DHL을 포함한 글로벌 물류기업들조차 아직 고객을 만족시키는 물류솔루션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5.3.26.

고재성 연구원 (☎ 051-797-4776, jsko@kmi.re.kr)

물류시장동향

□ 아시아 기업들, 미얀마 시장 진출 확대

- 싱가포르 대화은행(UOB)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³⁾, 아시아 기업의 약 25%가 올해 내 미얀마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얀마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약 44%가 자동차 분야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식음료 분야가 39%, 물류 및 운송 분야가 각각 30%와 33%인 것으로 조사됨
 - 지난 2011년 미얀마의 자동차 수입규제가 완화된 이후, 자동차 관련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Ford, GM, Suzuki Motor Corp., Nissan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미얀마 진출 역시 급증함
- 더불어 기존 아시아 역내 Supply Chain에서 미얀마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얀마 시장에 대한 물류기업들의 진출 움직임 또한 가속화 될 전망됨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5.4.2.

민경창 연구원 (☎ 051-797-4780, kcmin0525@kmi.re.kr)

□ 2015년 1분기 러시아 전체 철도 처리물동량 감소

- 2015년 1분기 러시아 전체 철도 처리물동량은 2억 9,200만 톤으로 작년대비 0.6% 감소함
 - 러시아철도공사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화물별 처리물동량을 발표함
 - 1분기 처리물동량이 증가한 품목으로는 석탄, 스크랩, 목재화물 등이 있으며 각 품목마다 작년대비 4%, 11.6%, 2.4% 증가함
 - 그 중 곡물 및 곡물제품은 460만 톤으로 작년대비 29.8%나 대폭 증가함
 - 1분기 처리물동량이 감소한 품목으로는 코크스, 시멘트, 화학물질 등이 있으며 각 품목마다 작년대비 2.8%, 9.1%, 2.6% 감소했으며, 건축자재의 경우 작년대비 22.1%나 감소한 2,390만 톤이 처리됨

3) 대화은행(United Overseas Bank)이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에 위치한 1,024개 기업을 대상으로 미얀마 시장 진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2015년 1분기 러시아 철도 처리물동량>

(단위: 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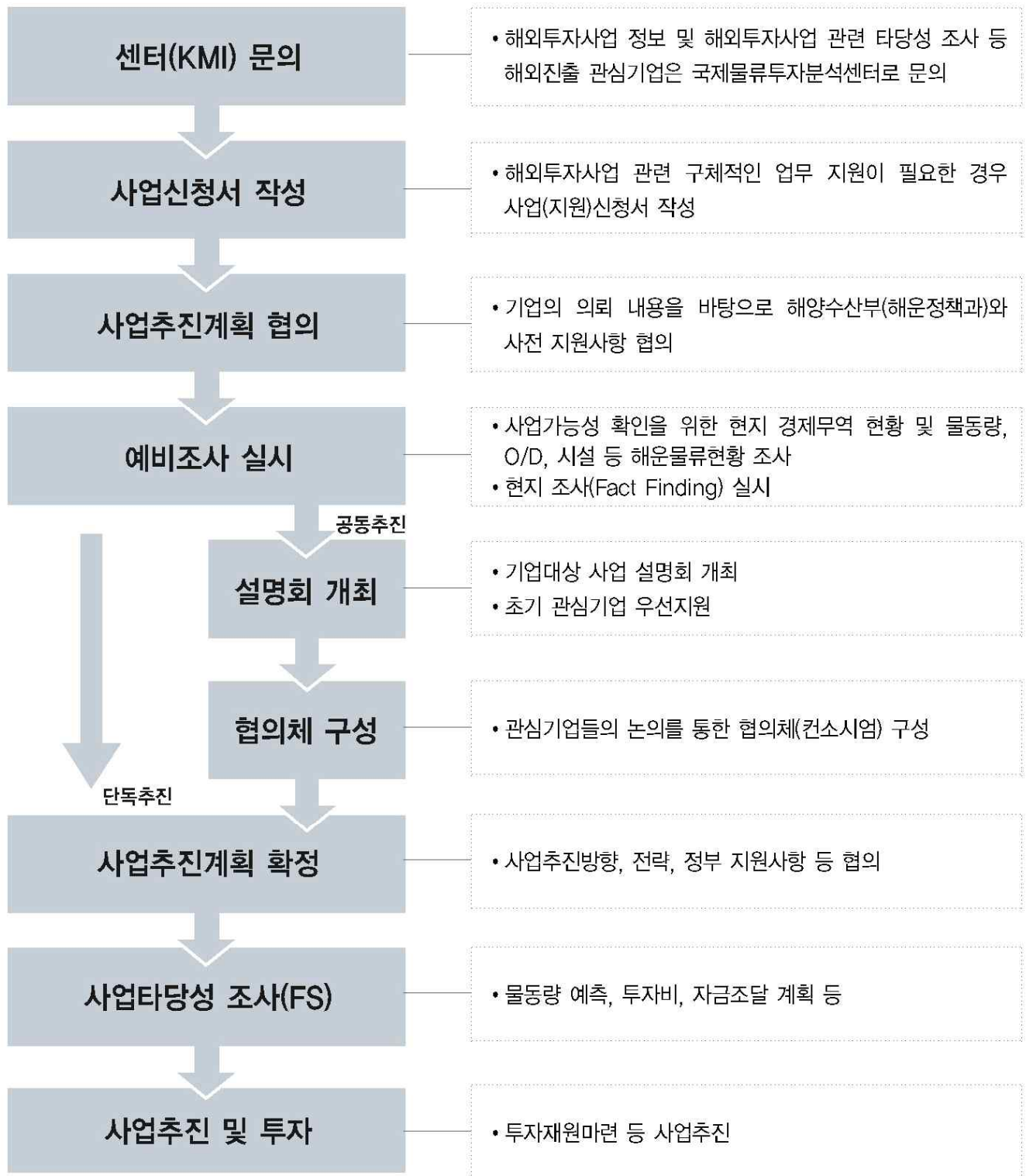
품목	상반기 처리량	작년대비
석탄	8,000	4%
코크스(Coke)	280	-2.8%
석유 및 석유제품	6,590	-0.5%
철 및 망간	2,660	0.7%
스크랩	300	11.6%
화학·광물질 비료	1,290	-1%
시멘트	530	-9.1%
목재화물	1,010	2.4%
곡물 및 곡물제품	460	29.8%
건축자재	2,390	-22.1%
화학물질	650	-2.6%
산업용 원료 및 주형물	720	-1%

자료 : portnews.ru

자료 : portnews.ru, 2015.4.1.

김은미 연구원 (☎ 051-797-4778, usea1004@kmi.re.kr)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